

News

금융당국, 은행 손실흡수능력 제고 고삐...총당금 적립 강화 주문

연합뉴스 <https://zrr.kr/q7WU>

금감원은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산식인 부도율(PD)과 부도시 손실률(LGD) 등 지표가 최근 실적치보다 낮게 나타났다며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하라고 요구
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(CyB)과 스트레스완충자본,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

주담대 갈아타기 10일간 1.6조 신청...신청액 은행간 최대 15배 차

헤럴드경제 <https://zrr.kr/aE80>

5대 은행의 주담대보대출 갈아타기 규모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.6조원

실적 면에서 은행 간 희비는 뚜렷하게 엇갈려... 지난 9~18일 가장 많이 유치한 은행(약 8700억원)과 가장 적게 유치한 은행(약 600억원) 사이의 격차는 15배

은행 '이자 캐시백' 천차만별...상생금융 형평성 '도마 위'

데일리안 <https://zrr.kr/nE08>

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인터넷전문은행보다 이자캐시백을 20만~70여만원 더 받을 것으로 예상

고금리 차주 비중이 높은 이들 은행의 차주들은 '역차별'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

대구銀, 1분기 시중은행 전환 '탄력'...금융위 "법률 검토 끝나"

서울경제 <https://zrr.kr/Znjm>

금융위원회의 법률 검토 결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'은행법 제8조'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

DGB대구은행의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에 청신호

사업자금 95%가 남의 돈..정부, 부동산 PF 사업구조 바꾼다

머니투데이 <https://zrr.kr/vydY>

3억~6억원 규모의 최소 자본만 투자하고 사업비의 95%를 금융회사와 분양권자 돈으로 충당하는 사업방식부터 바뀔 것으로 예상

특히 20% 이상의 시행사 자기자본이 있어야 대출을 내주는 저축은행 PF 대출규제를 전 금융권에 도입할지가 주목

'부동의 1위' 영웅문 이용자 수 감소...MTS 격차 줄어드나

데일리안 <https://zrr.kr/KRUh>

키움증권은 지난해 '영웅문S#'와 '영웅문S'를 합한 MAU 평균이 209만명을 기록해 업계 1위를 차지... 다만 이용자가 급감하는 등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

업계에서는 지난해 라덕연·영풍제지 사태 등으로 인한 신뢰성 훼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

작년 손보 '빅5' 자동차보험 손해율 80%...올해 악화 우려

연합뉴스 <https://zrr.kr/friY>

작년 대형 5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.2%(5개사 단순 평균 기준)로 전년(80.1%) 대비 0.1%p 상승

다만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하, 정비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올해 손해율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

생보사 1건당 가입액 600만원 '뚝'...강요된 '박리다매'

데일리안 <https://zrr.kr/tP58>

지난해 10월 생보사들이 판매한 개인보험 신계약 1건당 가입 금액은 평균 2,110만원으로 같은 해 1월 대비 23.3%(641만원) 감소

시장 금리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인식 탓에 저축보험으로 들어오는 돈이 예전만 못한 데다, 보장성 상품을 찾는 고객들의 썸씽도 위축된 모습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